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GIRLS MADE OF SNOW AND GLASS

가제 : 눈으로 만든 소녀와 유리 심장을 가진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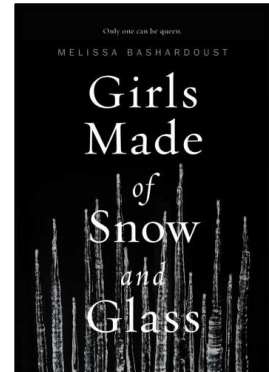
저자 : Melissa Bashardoust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스페인어 번역, 터키, 브라질 판권 계약 체결

* 웹 사이트 '버스틀(Bustle)', 서점 '반스 앤 노블' 청소년 블로그 선정 올해 가장 기대되는 YA 소설

* “백설공주 이야기를 풍성하게 재구성한 소설. 작가는 계모와 의붓딸의 복잡한 관계를 세밀하게 그리는 동시에 행동의 동기와 개성, 사랑, 자유 의지를 탐구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유리 심장을 가진 여왕과 눈으로 만들어진 공주, 한 마법사가 만들어낸 두 사람은 계모와 의붓딸로 만난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여왕 미나와 그런 계모와 적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심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리넷 공주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 다층적으로 재해석한 풍성한 판타지 소설로 완성됐다.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행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두 여성의 고투가 너무나 유명한 동화 속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매력적인 이야기다.

태어난 직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마법사인 아빠 손에서 자란 미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다. 그러나 보는 이들마다 감탄하는 황홀한 외모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미나가 어릴 적, 심장에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뛰어난 마법사인 아빠가 병든 심장을 꺼내고 그 자리에 유리로 만든 심장을 넣은 것이다. 아빠 그레고리는 딸에게 목숨은 건졌지만, 유리 심장은 따뜻한 피를 뿜어낼 수 없으니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대신 뛰어난 미모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매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리라 결심했고,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열여섯 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남쪽 왕국을 떠나 겨울이 끝없이 이어지는 저주가 내려진 북쪽 왕국으로 떠났다. 그곳 왕국의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니콜라스 왕은 마법사인 그레고리에게 왕비와 꼭 닮은 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레고리는 눈과 피로 여자 아이를 만들어낸다. 그 사이, 미나는 늘 꿈꾸던 일을 실현할 길을

발견한다. 아내를 잃은 니콜라스 왕을 보며, 새로 정착한 이 왕국에서 자신이 새 왕비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란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랑을 얻을 수 없을지언정 관심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아빠의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미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침내 왕의 마음에 드는 데 성공한 미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낸 공주의 계모이자 한 없이 눈이 내리는 북쪽 왕국 화이트 스프링의 왕비가 되었다.

화이트 스프링의 유일한 공주, 리넷은 사람들이 죽은 첫 왕비와 무섭도록 닮았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엄마를 쏙 빼 닮은 소녀로 자랐다. 자신이 그저 남들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리넷은 열다섯 살이 되어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 마법사가 왕인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인위로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이,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니콜라스 왕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리넷이 열여섯 살이 되면 미나 왕비가 통치하던 남쪽 지역을 딸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본 적도 없고, 계모인 미나 왕비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던 리넷은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나만큼이나 깜짝 놀란다. 그런데 자신은 영토 같은 건 필요치 않다고 왕에게 호소하려던 리넷은 우연히 미나 왕비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만나.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섬뜩한 주문은 분명 왕비의 음성이었다.

계모와 의붓딸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아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미나와 리넷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나. 미나는 어쩌다 자신의 딸이 되어버린 리넷을 정말로 해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밀려야만 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리넷 역시 미나 왕비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분노보다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 먹는다. 무자비하게 남을 짓밟고 영토를 가진 공주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차갑게 굳어버린 미나의 마음을 풀고, 이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리넷과 절친한 친구가 된 왕실 의사 나디아, 깊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미나가 마법으로 만들어낸 사냥꾼 등 흥미로운 등장인물들과 두 여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변화가 읽는 재미를 더하는 인상적인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리사 바샤도스트(Melissa Bashardoust)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아동 문학,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 : THE INEVITABLE COLLISION OF BIRDIE AND BASH

가제 : 버디와 베쉬의 불가피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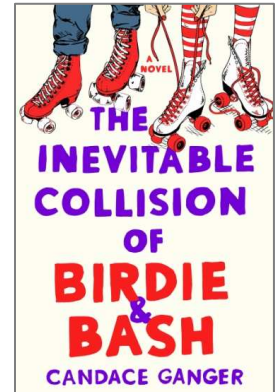
저자 : Candace Ganger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7년 7월 2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7년 가장 기대되는 데뷔 소설” - 웹 사이트 ‘Bustle’

* “문제아 친구와 주인공의 우정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고, 현실을 아플 만큼 정확히 담고 있다. 제니퍼 니븐(Jennifer Niven)의 『All the Bright Places』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
- 「북리스트」

가지 말았어야 할 파티에서 만난 두 사람. 눈이 마주친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서로의 얼굴 외에, 그리고 몇 마디 말 외에 이름조차 묻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리고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몰랐으면 좋았을 사실들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얼굴을 마주한다. 고등학교 졸업반, 버디와 세바스찬의 만남은 처음부터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빠듯한 집안 형편에 막둥이까지 태어나 더욱 허리끈을 졸라 매야 하는 형편이 되자, 버디에게 대학교 장학금은 ‘따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따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학창시절 내내 말썽 한번 부린 적 없고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주말이든 방학이든 남들 다 하는 요란한 ‘십대 청소년 특유의 여가생활’도 그다지 즐긴 적 없는 모범생으로 살았기에, 장학금은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버디는 또 한 번 배워야만 했다. 장학생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안 순간 친구의 설득에 못이기는 척 파티에 가기로 한 것도 그래서였다. 아직도 기저귀 차는 막내 동생을 돌보느라 헉헉대는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엄청난 학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했다. 하지만 뭐라도 하면서 이 암울한 뉴스를 잠시나마 잊고 싶었던 그날, 버디는 평생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겪었다. 하나는 지루하기만 하던 파티에서 자신에게 “이 집에 모인 사람 모두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여자”라고 말한 멋진 남학생을 만난 것, 두 번째는 동생이 차에 치인 것이다.

다들 ‘베쉬’라 부르는 세바스찬은 즐거울 일도 웃을 일도 딱히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심정으로 살아갔다. 엄마는 암 투병 중이라 화학치료에 시달리고, 맨날 붙어 다니는 친구 카일은 허구한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신이 보호자처럼 뒷수습을 하고 다녀야 했다. 문제의 파티가 벌어진 날도 카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곳에서 첫 눈에 마음을 빼앗긴 여학생을 만났다. 코 끝에 안경을 걸치고 모범생이라고 광고하는 듯한 독특한 티셔츠를 걸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더 매력적인 그런 타입이었다. 베쉬는 태어나 처음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 이 역사적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번에도 카일이 문제였다. 파티장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미 만취한 그를 어서 데리고 나가야만 했다. 힘든 치료 때문에 말할 힘조차 없는 엄마가 카일과 어울리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 말을 며칠만 더 일찍 들었다면, 베쉬의 사랑도 비극적으로 흐르진 않았으리라.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베쉬는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아이스 링크 장으로 향한다. 마침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파티장에서 만난 그 여학생이었다! 하늘이 내린 진정한 인연이란 생각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것도 잠시, 베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제야 이름을 알게 된 버디라는 이 여학생은, 파티가 있던 날 남동생이 차에 치여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사실 이 끔찍한 사고는 이미 온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큰 뉴스거리가 되어 있었다. 사고 피해자가 아직 아기라는 점, 그리고 가해차량이 아이를 치자마자 그 길로 도망갔다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준 사고였지만 그게 다름아닌 버디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들은 뒤, 베쉬는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그 날 아이를 친 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부리던 카일이었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사고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카일과 단단히 약속을 해버린 상태였다.

처음의 끌림과 우연한 재회로 버디와 베쉬의 감정은 한층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베쉬는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카일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사는 카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틈날 때마다 사고를 치는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카일의 친구는 베쉬 자신이 유일했다. 한편, 버디는 버디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동생이 당한 사고는 절반 이상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필 그때 하려 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집에 도착해 집으로 막 들어가면서 아빠가 부탁한 대로 동생 유모차를 트렁크에서 꺼내고 곧장 집 안에 들어갔다면 그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모차를 길에 세워두고 엄마를 붙잡아 세운 뒤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갈등하던 그때, 꼬마 동생이 유모차에 기어올라가 타버렸고 그대로 내리막길을 따라 유모차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도 아빠도 고향치며 잡으러 뛰어갔지만,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었다.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버디와 베쉬. 엄마가 암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족이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베쉬는 깨어나지 않는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버디를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시달린다. 카일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 걸까? 어차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상, 모든 게 탄로나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야기는 버디와 베쉬의 시선에서 번갈아가며 이어지며 두 사람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캔디스 갱어(Candace Ganger)는 가수, 나노 기술 관련 웹사이트 편집자로 일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HelloGiggles'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다. 여러 업체와 베스트셀러 소설, 논픽션 수백 권의 대필 작가로도 활동해 왔다.